

사회

정신장애인 인권침해 심각

86%가 “강제 입원 당했다”

인권위 보고서, 광주사무소 진정 226건... 지난해의 2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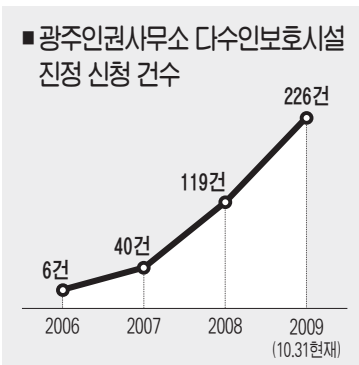
알코올의존증 환자인 A(43)씨는 최근 아찔한 경험을 했다. 가족들의 신고로 지난 5월 19일 전남지역 모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한 것이다.

특히 A씨는 입원 과정에서 정신과 전문의의 상담을 전혀 받지 못했다. 또 입원한 지 이틀이 지나서야 입원 동의서를 작성하는 여처구니 없는 일도 겪었다.

참다못한 A씨는 한 달 뒤인 6월 22일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에 진정을 제기하고서야 병원에서 퇴원할 수 있었다. 인권위 조사결과 단순 알코올의존증 환자가 강제입원 치료가 필요한 중증 ‘정신장애인’으로 몰렸던 것이다.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수준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광주·전남은 물론 국내 정신장애인 대다수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치료기관에 입원한 뒤 장기간 치료를 받고 있어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국가인권위가 4일 발표한 ‘정신장애인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정신보건기관의



환자 6만8천여명 중 보호자 의사에 따른 입원이나 강제 응급입원은 86.2% (5만8천700명)에 달했다. 이른바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환자 10명 중 8명 이상은 타의에 의해 입원을 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환자의 자의에 의한 입원은 전체의 13.8% (9천300여명)에 그쳐 장애인 인권 보호를 위한 범정부적 대책이 수립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인권위는 또 정신장애인들의 입원 기간이 너무 긴 것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지난해 정신장애인의 평균 입원일수는 233일로, 이탈리아(13.4일), 독일(26.9일), 영국(52일) 등에

비해 5~17배 이상 길었다.

정신장애인에 대한 강제 입원 등 인권침해가 잇따르면서 관련 진정 신청건수도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올 들어 10월까지 광주인권사무소에 접수된 정신병원 및 양양시설 등 다수인보호시설의 진정 신청건수는 모두 226건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1년간 진정건수(119건)의 두 배 수준으로, 2007년(40건)에 비하면 5.7배나 늘었다.

전국적으로도 정신장애인 관련 인권위 진정건수는 지난 2001년 8건에서 2008년에는 591건으로 급증했다.

이와 관련, 인권위는 정신장애인의 인권보호를 위해선 정보공개법을 개정해 ‘자의 입원 원칙’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입원 요건과 추가 입원 절차를 강화해 환자가 장기간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치료를 받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보건복지가족부에 권고했다.

한편 인권위 광주사무소는 오는 10일 광주 5·18기념문화센터에서 ‘국가보고서’ 발표회를 열고 정신장애인 인권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도박단속 피하다 70대 女 추락사



“여기서 추락” 4일 새벽 광주시 동구 대인동 M식당 2층 옥상에서 70대 할머니 2명이 경찰의 도박 단속을 피해 바로 옆 3층짜리 여관건물로 달아나던 중 식당 1층 옥상으로 추락했다. 한 주인이 추락지점을 가리키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어제 새벽 광주 대인동...1명 위독 경찰, 허술한 단속 20여명 달아나

도심 한 복판에서 도박단속을 피해 달아나던 70대 할머니 2명이 건물 아래로 추락, 1명이 숨지고 또 다른 한 명이 중태에 빠졌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인명사고를 예방하지 못한데다 20명에 이르는 도박 용의자들을 붙잡지도 못해 ‘신중하지 못한 단속’이 도마에 올랐다.

△사건개요=4일 새벽 1시30분께 광주시 동구 대인동 M식당 1층 옥상에서 김모(여·74·담양군)씨와 정모(여·71·광주시 광산구)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주민 김성옥(60)씨가 발견, 119 구조대에 신고했다.

인근 병원으로 옮겨진 김씨는 이날 오전 6시께 뇌출혈 증 등으로 숨졌으며, 정씨도 생명이 위독한 상태다. 목격자 김씨는 “1층서 잠을 자던 중 건물 3층 옥상에서 쾅거리는 소리가 들려 올라가 보니, M식당 옥상에서 7~8명씩 무리지어 우리 건물(여관)을 넘어 어디론가 달아나고 있었다”며 “노인 2명이 M식당 건물 1층 옥상에 쓰러져 신음하고 있는 등 아수라장 속에서 출몰한 경찰은 출입문이 잠겨져 올라가지 못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씨 등 2명은 식당 건물 2층 옥상에서 55cm 떨어진 여관 3층 옥상으로 넘어가던 중 2m70cm 아래 M식당 1층 옥상으로 떨어졌다. 나머지 용의자들은 무사히 건너 달아났다.

경찰은 숨진 김씨 등이 식당 건물 2층에서 도박을 하던 중 지구대 경찰의 단속을 피하려다 추락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단속상황=인근 빌딩의 노래방을 찾다가 도박 현장을 목격한 장모(32)씨가 “계단 아래 창문 틈 사이로 보니 건너편 건물에서 도박판이 벌어지고 있다”고 경찰에 신고한 것은 이날 새벽 1시12분.

출동한 금남지구대 소속 김모(39) 경찰 등 2명은 “신고 받고 출동했으나 건물의 출입문이 잠겨 있어 실제 단속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며 “건물을 3개 정도 뛰어넘은 도박 용의자 2명을 붙잡았으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당시에는 물증도 확보하지 못해 강제 동행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도주 과정에서 도박 용의자들이 미처 챙기지 못한 화투 1점과 동전, 자동차 열쇠, 마스크 등을 수거했다.

경찰 조사결과 속칭 ‘하우스’로 추정되는 M식당 2층(30평 상당)은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한 남성이 월세 40만원을 주고, 지난달 22일 M식당 주인 반모(57)씨에게 빌린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당시 방석 삼수개가 일렬로 놓인 점과 용의자가 20명에 이르는 점 등을 볼 때 속칭 ‘삿다’를 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경찰은 추정했다. 광주동부경찰은 김씨의 정확한 사망경위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도박 용의자 검거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니원침 (7945) 김중두



공공장 거꾸집 붕괴 4명 부상

4일 오전 8시10분께 광양시 중앙동 위생처리사업소 인근 도로확장 공사장에서 3m 높이의 거꾸집이 넘어져 정모(63)씨 등 인부 4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정씨 등은 작업중 무너진 거꾸집에 깔리거나 부딪히면서 부상을 당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시공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동부취재본부=김형수기자 chough47@

노예 부리다 女종업원 폭행·성매매

○다방 여종업원을 수년간에 걸쳐 폭행하고 강제로 성매매를 시키는 등 ‘노예’ 처럼 부려온 ‘악덕’ 업주가 경찰서행.

○전남지방경찰청 여경기동수사대는 4일 다방 업주 김모(여·51)씨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990년께 광양시 한 다방에서 A(여·47)씨를 종업원으로 고용한 뒤 “말을 듣지 않는다”며 상습 폭행하고, 최근 2차례에 걸쳐 여관에서 차 배달을 시킨 남성과 성매매를 하도록 한 혐의.

○조사결과 김씨는 A씨에게 월급도 주지 않고 “말 대꾸를 한다”며 흉기로 찌르는 등 갖은 ‘악행’을 저질렀다고. /최경호기자 choice@

‘신종플루 결석’ 3천명 넘어서

광주·전남, 수능 코 앞 高3도 203명

신종플루가 대유행 조짐을 보이면서 광주·전남지역 일선 초·중·고교에서 결석한 학생이 3천명을 넘어섰다.

4일 광주·전남 시도 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신종플루 확진자를 비롯한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했거나 고열 등으로 등교 중지 조치된 학생이 3천72명으로 집계됐다.

광주지역은 초등학교생이 541명으로 가장 많고, 고등학교생 243명, 중학생 195명, 유치원생 18명 등 모두 999명이며 전남은 초등학교생 954명, 고등학교생 748명, 중학생 329명, 유치원생 42명 등 2천73명이다.

결석생이 나온 학교는 광주 169개교, 전남 282개교 등 모두 451개교에

달했다. 수능을 앞둔 고3 수험생도 광주 90

명, 전남 113명 등 광주·전남에서만 203명이 감염이나 의심 등으로 등교를 하지 않았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 4세아 ‘신종플루 사망’ 최종 판정

지난달 30일 광주에서 숨진 4살 어린이는 신종플루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최종 판정됐다.

광주시는 4일 “보건복지가족부 중앙인플루엔자 대책본부가 지난달 30일 광주의 한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숨진 A(4)군에 대한 최종 역학조사 결과, 신종플루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판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A군은 광주·전남지역

첫 신종플루 사망자로 기록됐다.

한편, A군 외에 30대, 50대 고위험군 남성 2명도 신종플루 사망자에 추가돼 4일 현재 전국적으로 사망자는 45명으로 늘었다. 보건당국은 이외에도 7건의 사망사례에 대해 신종플루와의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어 이들과도 포함하면 사망자 수는 50명을 넘게 된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초등생 금목걸이 15차례 낚아채 도주

북부경찰 30대 영장

광주북부경찰은 4일 전화번호나 주소 등이 새겨진 초등학생들의 금목걸이를 상습적으로 낚아채 달아나 조모

(38)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달 6일 오후 2시50분께 광주시 북구 두암동 B 아파트 앞 놀이터에서 K(여·12)와의

금목걸이를 낚아채 도망가는 등 최근까지 15회에 걸쳐 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조씨는 혼자 걸어가 있는 여자 초등학생에게 “예쁘다. 몇학년이냐?”라며 접근, 시선을 다른 곳에 두게 한 뒤 차고 있던 목걸이를 낚아채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심야전기 보일러 온수기 마지막 설치 기회!!

· 한편에서는 심야전기사업용 금년말까지 신청후 증빙할 예정입니다.

· 심야전기 신청은 12월 30일까지 필수 마지막 기회입니다.

· 한자 최대 공급 전력은 30kw, 24시간 가능합니다.

심야전기사업용 신청처: 광주대리점 062-222-7476, 062-222-7476

심야전기사업용 신청처: 삼우상사 062-222-7476, 062-222-7476

국내산 100% 블루베리

심야전기사업용 신청처: 광주대리점 062-222-7476, 062-222-7476

심야전기사업용 신청처: 삼우상사 062-222-7476, 062-222-7476

심야전기사업용 신청처: 광주대리점 062-222-7476, 062-222-7476

심야전기사업용 신청처: 삼우상사 062-222-7476, 062-222-7476